

- **주요 뉴스:**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경기회복 지속 및 통화긴축 가속화 가능성을 시사
 - IMF,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완화-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여력이 부족
 - ECB,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일시적 확대 검토 예상
 - 중국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둔화. 정부의 물가 억제 대책이 효과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4%],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성장둔화 가능성 등이 매도 증가로 연결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주간 고용지표 등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
유로화가치는 0.4% 하락, 엔화는 0.2%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
독일은 다음 주 ECB의 일시적 자산매입 확대 가능성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78.5원, +3.7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12/9일	12/8일	전일대비			12/9일	1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67.5	4,701.2	-0.72%	국채 금리 10y	미국	1.50%	1.52%	-2bp
	유럽	476.99	477.36	-0.08%		독일	-0.35%	-0.31%	-4bp
	중국	3,673.0	3,637.6	0.98%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8,725	28,861	-0.47%		중국	46bp	48bp	-2bp
	한국	3,029.6	3,001.8	0.93%	위험 지표	EMBI+	-	377	-
환율	달러지수	96.23	95.89	0.35%		VIX	21.58	19.90	8.44%
	유로화	1.1293	1.1343	-0.44%		WTI유	70.94	72.36	-1.96%
	엔화	113.49	113.67	0.16%	원자재	구리	430.7	439.1	-1.91%
	위안화	6.3776	6.3442	-0.52%		금	1,775.3	1,783.0	-0.43%
	원화	1,174.5	1,175.9	0.1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경기회복 지속 및 통화긴축 가속화 가능성을 시사

- 12월 첫째주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18.4만건으로 전주 대비 4.3만건 감소하며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 보다 낮은 수준. 이번 결과는 노동시장의 팽팽한(tight) 수급에 따른 해고 감소 등에 기인
- Oxford Economics의 Nancy Vanden은 최근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 시 해당 건수가 꾸준히 팬데믹 이전인 20만건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이 고용회복을 저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경제성장 모멘텀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이번 결과는 연준으로 하여금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고 금리인상도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유도할 소지. 12/10일(현지 시각)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물가도 큰 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조기긴축의 현실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완화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여력이 부족

-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팬데믹에 따른 대가는 당초 예상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12.5조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오미크론은 3.5조달러의 추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부연

■ 미국 대통령, 11월 소비자물가는 최근의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않을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소비자물가가 큰 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해당 발언을 통해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강조

■ 미국 하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생산물 수입 금지 법안 가결

- 찬성 428대 반대 1로 해당 법안 승인.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전제. 다만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수입금지 적용이 제외

■ ECB,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일시적 확대 검토 예상

-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의 논의가 있을 전망. 다만 예정대로 내년 3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이 종료되면, 4월부터 총 자산매입 규모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독일 재무부차관, 장기적 측면에서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

- 플로리안 톤카 차관의 이번 발언은 내년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ECB의 시각과는 상이. 톤카 차관은 코로나 19가 종식되어도 임금인상,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차질 등이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을 것으로 예상

■ 중국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둔화. 정부의 물가 억제 대책이 효과

-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2.9% 올라 전월(13.5%) 대비 둔화. 당국의 원자재 가격 억제와 전력난 완화 등이 원인. Capital Economics는 이번 결과로 당국에서 완화정책 시행 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평가
- 한편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3% 올라 전월(1.5%) 대비 높은 수준. 하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둔화로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인민은행,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을 2% 상향. 위안화 가치 상승 억제가 목적

- 현행 7%의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이 9%로 조정되며, 12/15일부터 시작. 이번 결정은 최근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안화 강세 지속이 배경. 또한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

■ 신용평가사 피치, 헝다그룹 신용등급을 'C'에서 '제한적 채무불이행'으로 강등

- 이번 조치로 실질적 채무불이행 상태였던 헝다그룹은 채무불이행이 공식화. 이번 결정은 최근 8250만달러의 채권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배경
- 한편 인민은행 이강 총재는 헝다그룹이 채무상환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시장의 문제이며, 해결도 시장의 원리를 따를 것이라고 언급. 또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와 이익은 법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12/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도매재고(전월비): 2.3%, 9월(2.2%), 예상치(2.2%)
- 중국 11월 신규대출(전월비, 조위안): 0.83, 10월(1.43), 예상치(1.56)

■ 주요 경제 이벤트(12/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유동성 축소의 전조 - Financial Times

(Market volatility could portend a retreat of liquidity)

-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연준의 공급 등으로 높은 수준. 그러나 인플레이션, 중국 및 러시아를 둘러싼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 고물가 지속은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며, 이는 여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으로 연결
-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수록 차입과 부채의 위험이 커져 금융시장 내 추가적인 긴축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 또한 중국의 시장개입 관련 불확실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등도 글로벌 유동성 위축을 가속화할 우려

■ 오미크론의 가벼운 증상 기대, 향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 블룸버그

(Even Mild Omicron Could Create Severe Chaos)

- 오미크론은 강력한 전염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 접종률과 약한 증상으로 기존 코로나 19보다 덜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실험 결과가 없어 치명률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백신의 효과 감소, 느린 대응 등을 고려하면 내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가능성. 이와 같은 빠른 확산세는 우려에서 공포로 전이될 소지
- 이에 예상되는 학교 폐쇄 및 자발적인 봉쇄적 조치 등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글로벌 공급망, 해외여행 등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불구하고 부채 문제 해결 기조는 유지 - WSJ

(China's Central Bank Is Under Pressure, But to What End?)

■ 글로벌 불평등 해소, 부유세 등 고소득층 과세 강화가 효과적 대안 - Financial Times

(The global state of inequality)

■ Libor의 대체금리 SOFR, 시장 급변동 반영 미흡 등으로 투자자 불안 가중 - 블룸버그

(As Libor Goes Away, U.S. Replacement Makes a Big Trader Uneas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